



2020년 11월 22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가해)

제2119호



Crucifixion(1565), Jacopo Tintoretto, Scuola Grande di San Rocco, Venice.

**“너희가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마태 25,45)

■ 미사전례

- 제 1독서: 에제 34,11-12.15-17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제 2독서: 1코린 15,20-26.28
- 복음 환호송: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복음: 마태 25,31-46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15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 노사연의 「만남」

만남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격이 있다. 이권과 출세를 위한 만남이 있고, 영적인 만남이 있다. 이기적인 만남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만남이 있다. 또 인격을 타락시키는 만남이 있고, 인간 존재를 성장시키는 만남이 있다. 나는 주변에 있는 만남 중에서 조금 격이 있는 만남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소공동체 만남을 말한다. 선의를 가진 신앙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만남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만남 이외에도 힘든 만남을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난 000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텐데.” “저 사람은 내 눈 앞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두고 나는 ‘밥통’이라고 말한다. 지금 나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고민으로 세월을 보내서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괴롭히든 말든, 시기하든 말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시기하고 박해하려 해도, ‘나 자신’에 대해 신경 쓸 시간조차도 모자라는 존재다”라며 잊어버려라. 이런 저런 말을 옮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건달’로 치부하면 된다. 건달에 대한 효과적 대처법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말에 속상해 할 필요조차 없다. 신경 쓸 시간조차 아깝다.

지구 인구는 70억 명에 달한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2~3명쯤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야 하느님도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2~3명 관계 버거운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절절매는가. 사실 2~3명과 힘든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도 군자 정도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민할 거리도 없다. 2000여 명 정도 괴롭게 지낸다고 한다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멋진 길이 있지 않은가.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앞만 바라보며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다. 집어 들어 읽어야 할 것이 있다. 힘든 만남을 극복하게 하는 진정한 만남이 있다. 소공동체 만남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는 만남이 있다. 성경이 그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느님을 알 수 없다. 캄캄한 상태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계시(啓示)는 말 그대로 ‘열어 보인다’는 뜻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열어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 ‘조금’ 알게 됐다. 이렇게 하느님이 먼저 열어 보여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열어 보이신 것이 활자화되어 전해진 것이 성경이다. 성경 안에는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화의 창고다.

반복적인, 또 한편으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역사적 사실의 나열은 처음 성경을 접하는 이들에게 힘들게 다가올 수 있다. “성경 내용이 황당한 신화나 소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 “판관기는 삼국지 판박이야”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엄청난 묵상거리를 제공한다. 성경은 한민족, 미국, 중국 역사가 계시된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펼쳐진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다. 이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만남 거리도 한층 가까워진다. 성경을 봐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 하느님을 알고, 그 뜻을 좇는 것이 영성이다. 이처럼 성경은 영성과 떼고 싶어도 떼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성경을 통한 영성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느님의 계획된 초대에 의한, 성경과의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가톨릭신문 제2764호 (2011년 10월 2일) - 정영식 신부 (수원교구 군자본당 주임)>

성삼 소식

- ☞ LA 교구 2차 헌금(LA 교구 사회 복지 개선 기금)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오늘은 LA교구 2차 헌금 있습니다.

- ☞ 올프레아 모임
• 일시: 11월 22일(주일) 오후 3:00
• 모임방법: Zoom 온라인
• 문의: 간사 이진석(예레미야) ☎818-209-5856

- ☞ Thanksgiving Day 연휴 미사 안내
• 일시: 11월 26일(목) 오전 8:00(저녁미사는 없음)
• 일시: 11월 27일(금) 미사 없음(성당 휴무)
*사무실 휴무: 11월 27일(금) ~ 28일(토).

- ☞ 감사합니다.
• 故김병춘(수산나)의 장례미사에 함께 하시어 기도 해주신 교우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 ☞ Zoom으로 하는 연수 신청자 모집
• 대 상: 탈출기 성경공부를 마친분.
• 탈출기: 12월 12일~13일(신청마감 11월 28일)
• 회비: \$50.00
• 문의: 김효신(젬마) ☎213-655-7776
<email: sungsambible@gmail.com>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개강 일시: 12월 6일(일) 오전 9:00 성당.
- 성삼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될 예비자들을 초대합니다.
*“예비자 봉헌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주일학교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 등록비: 없음.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반별 온라인 수업시간:

학년	요일	시간
고등부	매주일	오후 1:00
중등부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2:00
4-5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00
3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30
1-2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2:00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 코로나19 재외국민 대상 긴급 지원안내

- LA 총영사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우리들의 정성 (2020. 11. 15 현재)

교 무 금	6,770.00	교무금(21명) 강수환, 강신모, 김신아, 김애화, 김재권, 노환일, 박진우, 박효신, 서진환, 심재경, 양효준, 오영수, 이경은, 이길웅, 이석환, 이용일, 이호제, 임상도, 임화자, 장덕훈, 한경희, 감사헌금(2명) 노환일, 최현수, 성소후원금(11명)
주일헌금	1,110.00	
감사헌금	300.00	
성소후원금	25.00	

본당살림



행복하고 따뜻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Happy
Thanksgiving Day!**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페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페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육)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 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예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배지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곳은 뚫어드리고 뚫린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가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아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